

취업자 증가 속 상용근로자 낙달 연속 감소

6월 상용근로자 19만1000명… 1년 전보다 2.0%↓
3월 이후 낙 달 연속 감소하면서 고용 지표 악화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무급가족종사자 12.8% 늘어

제주지역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상용근로자가 낙 달 연속 감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도 증가하는 등 고용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15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의 '6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4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2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3000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9만1000명으로 2.0

%(4000명)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지난 3월 0.2% 감소 후 4월(-3.8%), 5월(-3.0%)에 이어 6월까지 낙 달 연속 감소했다. 상용근로자가 줄면서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8만3000명으로 3.0%(9000명) 감소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2%(1만2000명) 증가한 12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7만6000명으로 2.7%(2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1만2000명으로 9.2%(1000명) 줄었다.

비임금 근로자는 13만6000명으로 6.5%(8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영업자는 11만1000명으로 5.2%(6000명) 늘었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5000명으로 12.8%(3000명) 증가했다.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해 자업을 꾸려가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 관계자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종사자가 늘면서 자영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는 60대가 1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6%(6000명) 늘어 건조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50대는 10만3000명으로 4.1

%(4000명) 늘었고, 20대도 4만3000명으로 3.4%(1000명) 증가했다. 반면 핵심 생산연령대인 30대 취업자는 6만3000명, 40대는 9만명으로 각각 4.6%(3000명), 3.7%(3000명) 줄었다.

산업별 취업자 중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9만6000명으로 4.3%(4000명) 줄어 관광객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취업자는 18.1%(4000명) 늘어난 2만9000명인데,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실업자는 7000명으로 16.9%(1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1.6%로 0.4%포인트 하락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우려”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현실 감안한 보완대책 촉구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 장기화 속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감안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추가 부담”이라며 “매출은 제자리걸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공공요금, 원재료비까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이미 가족경영 전환, 신규 채용 축소, 영업시간 단축, 폐업 고민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용 축소와 소비 위축,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 정책을 제도적으로 논의하며, 행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가정 ‘제주소상공인회의소’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미숙기자

제주 농촌 여행 반값으로 즐긴다

제주관광공사, 8월 31까지 ‘촌(村)스러운 촌(村)플레이’
치유의숲 웰니스상품 등 서귀포시 지역 4개 상품 대상

서귀포시 지역 농촌 마을의 일상을 체험하는 농촌여행을 반값에 즐길 수 있는 여름 기획전이 열린다.

서귀포시와 제주관광공사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귀포시 로컬 여행 상품을 최대 50% 할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촌(村)스러운 촌(村)플레이’ 1차 할인 기획전을 진행한다

15일 밝혔다. 기획전은 농촌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창조적 아이디어와 결합해 주민 주도형 관광 콘텐츠로 구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농촌크리에이티브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마을경영체(6개소)와 마을 여행 전담 여행사(2개사), 제주관광공사, 서귀포시가 참여하는데 마을 주민은 현장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여행사는 홍보·모객을 전담한다.

선보이는 상품은 전체 8개 로컬 여행 상품 중 운영 준비를 마친 4개 상품이다.

▷다정한 동백 생활 ▷색채로 채우는 대한목장의 밤 ▷15년 차 제주 캠퍼의 숨은 캠핑 포인트 ▷제주 포레스트 앤 차롱 런

치 등이다. 경영형 관광을 벗어나 마을 생산 체험, 산지 재료 체험, 마을 투어, 주민 교류 식탁 등 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색채로 채우는 대한목장의 밤’은 대한목장의 밤을 배경으로 느낀 감정과 이미지를 색과 향으로 표현해 나만의 향수를 완성하는 색채심리 조향 체험 상품이다.

‘15년 차 제주 캠퍼의 숨은 캠핑 포인트’는 현지 캠퍼가 추천하는 화순의 캠핑 포인트에서 장비 설치부터 식사, 자연 체험까지 패키지로 즐길 수 있다.

‘서귀포 포레스트 앤 차롱 런’은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웰니스 상품이다.

1차 할인기획전은 선착순 한정수량으로 운영되며, 자세한 정보 확인과 예약은 17일 오픈하는 기획전 홈페이지(이더라운드(<https://eataround.co.kr/>), 찰쓰투어(<https://naver.me/F1rHkUhp>)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초복 맞아 고당도 수박 초복인 15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제타플러스 서울역점에서 ‘갓 수확한 그대로 유명산지 수박’이 한정 판매되고 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수박 수요가 커지는 복날 시즌에 맞춰 준비한 상품으로, 장마철에도 11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수박을 맛볼 수 있도록 ‘CA 저장 기술’을 활용했다.

제주지역 실물경제 둔화세 지속

한국은행 제주본부 “항공좌석 부족이 경기회복 제약”

제주~김포 노선 등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좌석 부족 등의 영향으로 내국인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실물경제 지표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6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

은 111만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만명 감소했다. 5월(-4만7000명)보다 감소 폭도 더 확대됐다.

외국인 관광객은 기존 예약 수요와 원화 약세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내국인 관광객은 감소 폭이 5월 7만4000명에서 6월에는 10만900명으로 커졌다. 7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콘 · 교항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Sal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감귤 신상품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 하귤(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몬 ● 제라몬

※ 포트묘목

생존율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